

-(으)ㄴ 만치

~할 만치 — ~할 만큼, ~할 정도로

-(으)ㄴ 만큼의 옛 형제 격인 표현입니다. 의미도 문법도 같지만, 말보다는 문학 작품에서 접하게 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ㄴ 만치	놀라다 → 놀랄 만치
자음으로 끝남	-을 만치	믿다 → 믿을 만치
ㄹ로 끝남	아무것도 붙지 않음	만들다 → 만들 만치
비례의 의미	-(으)ㄴ 만치	노력한 만치
명사와 함께	명사 + 만치	너만치
일상적인 표현	-(으)ㄴ 만큼	놀랄 만큼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일반 규칙을 따르며 ㄴ 받침은 짧은 형태가 됩니다: 만들다는 만들 만치. 만치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며, 명사에는 바로 붙기도 합니다: 너만치.

앞 절은 정도를 나타내며, 만큼과 똑같습니다: 놀랄 만치 조용했다 — 놀랄 정도로 조용했다는 뜻입니다.

두 표현은 의미상 바뀌 쓸 수 있습니다. 차이는 오로지 문체에 있습니다. 만큼은 일상적인 말이고, 만치는 문학적이며 약간 예스럽게 들립니다.

둘 다 비례의 의미도 있습니다: 노력한 만치 결과가 나온다 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른다는 뜻입니다.

■ 예문

- 1 방 안은 숨소리가 들릴 만치 조용했다.
- 2 노력한 만치 결과가 따라오기 마련이다.
- 3 눈이 부실 만치 하얀 벽이었다.
- 4 그를 믿을 만치 오래 알고 지냈다.
- 5 손수 만들 만치 정성을 들였다.
- 6 아무도 너만치 잘하지는 못한다.

■ 비교

-(으)ㄴ/는 만큼
일상적인 형태입니다. 문법과 의미가 똑같으며,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고 쓰는 것은 만큼입니다.
놀랄 만큼 조용했다. (현대어) / 놀랄 만치 조용했다. (문학적)

-(으)ㄴ 정도로
정도로는 어떤 기준에 이르렀음을 강조하고, 만치는 양이 맞먹음을 강조합니다. 실제로는 대부분의 문장에 어느 쪽이든 어울립니다.
놀랄 정도로 조용했다. / 놀랄 만치 조용했다.

-(으)ㄴ 만하다
형태는 비슷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. 만하다는 무엇이 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, 만치는 정도를 잹니다.
볼 만하다. (볼 가치가 있음) / 놀랄 만치 (놀랄 정도로)

■ 주의

- ✗ 손수 만들을 만치 정성을 들였다.
- 손수 만들 만치 정성을 들였다.
만들 거예요, 만들 뿐이다와 마찬가지로 ㄹ로 끝나는 어간에는 이미 ㄴ이 있습니다.
- ✗ 숨소리가 들릴만치 조용했다.
- 숨소리가 들릴 만치 조용했다.
만치는 의존 명사이므로 관형사형 뒤에 띄어 씁니다. 명사 바로 뒤에서만 붙여 씁니다: 너만치.
- ✗ 야, 그거 놀랄 만치 싸.
- 야, 그거 놀랄 만큼 싸.
만치는 문학적이고 예스러운 말입니다. 대화에서는 만큼이 자연스럽습니다.